

2012 새해 아침 새해 기도 - 도종환

새해 첫 아침 햇살은
창문 열고 기지개를 켜는 아이의
밝은 얼굴 위에
제일 먼저 비치게 하소서

숲의 나뭇가지 하나하나에
햇빛이 골고루 내려앉듯
이 땅의 모든 아이들 빛나는 눈동자 위에
맑게 출렁이는 가슴 위에
빠짐없이 내리게 하소서

골짜기 깊은 곳에도
손잡을 곳 하나 없는 바위 벼랑에도
능가의 젖은 풀 위에도
아침 햇살이 환하게 번져 가듯
그늘지고 가파르고 습한 곳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도 새날의 햇별이
따뜻한 걸음으로 찾아가게 하소서

산과 개울과 숲과 어디에나 내리는 햇빛이지만
산은 산대로 개울과 나무는 개울과 나무대로
저마다 저를 위해 햇빛이 와 있다고 믿듯
아이들도 늘 저를 위해 준비된
사랑이 따스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믿게 하소서

그 사랑과 따뜻함으로
아이들 몸에서 푸른 잎이 돌아나고
때가 되면 열매가 자라고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자란 튼튼한 뿌리로
무너지는 언덕을 지키고
그렇게 크는 싱그러운 힘으로
막힌 물줄기를 열어 가게 하소서

Hanmoory Presbyterian Church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한무리 교회

담임 목사 박 상 돈 Rev. John S. Park, Pastor
(주일예배) 100 Christie Heights St., Leonia, NJ 07605
(수요예배) 62 W. Palisade Ave., Englewood, NJ 07631
(사무실) 405 E. Palisade Ave., Englewood, NJ 07631
Tel: 201-440-4588

www.hanmoory.org

행복 이야기

HAPPY STORY



목 차

- 목사님 말씀
- 반갑습니다. - 새가족 소개
- 은혜 나눔
- 세례 간증
- 사역 속으로 - 성가대 편
- 중 고등부
- EM STORY - A Fresh Start
- 한글 학교
- 한무리 News
- 목장 이야기 - 새 목장장을 소개합니다.
- 한무리 월리를 찾아라! - "숨은 일꾼을 찾아"

2012 봄

[목사님 말씀]

꿈꾸며 나가는 새해 - 박상돈 담임목사

인생은 스피드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방향만 잘 잡으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은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스피드를 내면 낼수록 목적지와 멀어지게 됩니다. 뉴저지에서 차를 타고 캘리포니아를 가려면 80번을 타야지, 95번을 타고 가다보면 결국은 플로리다가 나오게 됩니다. 인생과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닮기입니다.

2012년은 제가 뉴저지에 와서 처음 맞는 새해입니다. 새해, 새 다짐과 새결심으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목적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무리 교회의 주인되시는 주님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 한해동안 주님의 방향에 맞추어 사역하려고 16개 목장을 세웠습니다. 기도하기는, 금년에 모든 목장이 부지런히 전도하여 배가되고 분가하여 연말에는 32개의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무리교회 꿈나무들의 새해인사



[반갑습니다]

* 최근 본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교우님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오신 새가족들은 놀랍게도 모두 1월 첫주에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에 나오셔서 신앙의 첫 걸음을 아주 멋있게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심상인 / 이현숙 성도님

2년전 조지아주로 가서서 2년 동안 성실히 교회 생활하시다가 한 달 전에 다시 뉴저지로 오셨는데, 10년 만에 황정혜 집사님을 우연히? 만나 우리 교회로 인도받으셨습니다. 딸 둘이 있는데 예랑(예수님의 사랑), 예나(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아이들도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교회 오셔서 온 교인이 전체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많은 감동이 되셨습니다. 원하시는 남편이 신앙의 리더가 되어 온 가족이 믿음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되길 기도하십니다.



김건희 / 신지은 성도님

작년 5월에 온 교우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올린 신혼 부부입니다. 김혜은 집사님의 장남으로 새가족은 아니지만 결혼후 한국에 나가있다 이제 귀국해서 지은씨와 함께 본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은 자매님은 건희 형제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는다구요... 교회 생활이 처음이지만 적응하기가 쉬웠습니다. 건희 형제님은 온 교우에게 늘 감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다는 각오를 보이셨습니다.



박상훈 / 김은정 성도님

김혜은 집사님의 권유로 몇 주전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족적인 분위기에 마음이 편해졌고 또한 교인들이 활기차게 교회 섬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직 아기가 없는 커플로서 우리 교회오면 다산의 축복이 있다는 소문에 더 맘이 끌리신다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건희씨 부부와 함께 Young Couple 목장에 속해 있습니다.



[은혜 나눔]

*민음생활하면서 받은 모든 은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번 호에는 한무리 12주 성경공부, '생명의 삶'을 마친 간증입니다.

<생명의 삶> 과정을 마치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기에 동참할 용기 생겨 - 박제철 집사

12주간의 과정을 모두 마치면서 성공적으로 수료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식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너무나 미약했던 제가 전체 과정을 수료하면서 조금이나마 성숙될 수 있었다는 느낌에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그 뜻을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읽은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새삼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니 그 당시 예수님의 족적과 또한 시대적인 배경에 따른 예수님의 행동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체계적인 강의 덕분에 하나님의 의미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복잡하고 모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사역에 대해, 이제는 신앙적이고 체계적인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며 온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항상 기도 드립니다. 또한 한무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정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12주의 모든 과정을 마친후 축하와 감사의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시는 박상돈 목사님.



'생명의 삶' 12주 성경공부 시간에 열중인 한무리 교우들.

<생명의 삶> 과정을 마치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 배우고 실천 의지 다질 수 있어- 김하나 성도

저는 교회에 다니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교회를 심하게 거부하고 증오해 왔기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기에 신앙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명의 삶" 과정을 통해 아주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지독히도 제 중심적이고 조금도 제가 손해 보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하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살았는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또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배웠으니 서서히 실천해보려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일년에 한 사람씩 또는 한 가정씩이라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전도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삶에 기쁨이 많아졌는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용기 내어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들어볼 기회라도 제공해 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이야기를 전해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줬을 기도로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몸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 받고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저는 너무 막막합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예수님 믿고 밝아지고 교회와 신앙생활이 즐겁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서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루빨리 그때가 와서 우리 식구들도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몰라서, 늘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행복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시는 것이 속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귀여운 막내 동생까지 하루빨리 예수님 믿고 저처럼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세례 간증]

* 11월 13일 주일 예배때는 신대현 집사님과 신한주 성도님의 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중고등학생 6명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은 신한주 성도님의 귀한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신한주 성도 간증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는 불교 신자이셨고 아버지께서는 무교이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저 친구들과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싶어서 다녔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장한 이후에는 한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3년 전부터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아내랑 싸우면 항상 교회와 교인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싫어서 주말 일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냥 교회 자체가 싫었습니다. 항상 주위의 사람들과 교회와 교인 욕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서 교회와 교인들의 나쁜 짓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고 교회를 저주했습니다. 제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말 일을 그만 두게 되었고 아내랑 싸우기 싫어서 교회에 건성건성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제 영혼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저한테 상처를 주면, 저는 항상 속으로 그 사람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히시면서도 가해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례받는 신한주 성도



[사역 속으로] 성가대 편

”입이 아닌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입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찬양,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주일 오전 11시 대예배를 1시간 30분 남겨 둔 9시 30분. 한무리 교회 음악실에서는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찬양 연습이 시작된다. 부임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 특유의 부드럽고 온화한 리드로 성가대를 이끌고 있는 이민석 지휘자님, 한무리 교회에서만 이미 10년 넘게 피아노 반주를 맡고 있는 명실공히 베테랑 반주자 이성혜 집사님. 또 찬양팀, 성가대를 분주히 오가며 헌신하는 김선옥 대장님. 이 세 집사님들의 단합된 리더십아래 한무리 교회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10년 넘게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는 ‘최장수’ 대원인 최경실 집사님을 비롯해 새내기 대원인 김옥환, 정명보 집사님 부부에 이르기까지, 봉사 경력도 다양하고 3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한 성가대지만 동기간, 혹은 부모 자식간 같은 따뜻한 정을 나누며 가족 같은 분위기다. 물론, 성가대의 ‘가족 같은’ 분위기에는 ‘진짜’ 가족들이 기여하는 힘도 작지 않다. 신경이 / 장경만, 이수정 / 박제철, 김옥환 / 정명보, 채신일 / 채승연 부부 집사님들 이외에, 이성혜 집사님, 전인숙 권사님은 다정한 모녀간이고 당옥녀 권사님은 사위(김신 집사님)와 동생(당병숙 집사님)이 모두 성가대원이다. 음정, 박자가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성악가처럼 기교가 뛰어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입이 아닌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 바로 한무리 교회 26명 성가대원들의 소망이다.

알토: 전인숙, 당옥녀, 당병숙, 정주영, 최경실, 채승연, 권희분, 김옥환, 한준희
 소프라노: 김선옥, 신용숙, 신경이, 박미숙, 김지희, 이수정
 테너: 이종민, 좌순우, 장경만, 정명보
 베이스: 박진수, 이태호, 박제철, 김신, 채신일



사진 1: (전인숙/신용숙) 42년생으로 성가대 최고 연장자인 전인숙 권사님과 76년생으로 최연소자인 신용숙 집사님.
 사진 2: (당옥녀/김 신) 장모님인 당옥녀 권사님과 아들같은 사위 김신 집사님
 사진 3: (이민석/이성혜) 서로에 대해 “따뜻하세요!”하고 입을 모으는 이민석 지휘자님과 이성혜 반주자님의 ‘훈훈한’ 하모니.

[중 고등부]

* 중 고등부는 지난 11월 12일(토)에는 비전하우스에서 Coffee House를, 12월26일(월)부터 29일(목)까지는 Pocono Water Gap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소중한 그 전도와 은혜의 시간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간증을 나눕니다.

2011 Coffeehouse - Sam Choi

This past November, our church's youth group planned, prepared, and hosted our very first Hanmoory Youth Group Coffeehouse. A "coffeehouse" can simply be defined as a casual gathering where food is provided, fellowship is encouraged, and talents are showcased. Guests get a chance to enjoy presentations that are usually put on by other guests, and the performers get a chance to show off their talent; a coffeehouse offers an enjoyable time for everyone. As the church hosting the coffeehouse, however, we focused on an underlying, yet significant, sort of outreach. We viewed this event as an opportunity to draw nonbelievers towards God and to bring believers even closer to God. In fact, more than half of the acts that night were in one way or another praises for God. We planned and prayed for the coffeehouse to be a blessing time and God surely answered our prayers, but didn't stop there. The event, being the first of its kind for our youth group, was a completely new experience for everyone. For me, the experience was an overwhelming one. I went into planning the coffeehouse with only the bare knowledge of what a coffeehouse is, and by the time it had ended, I was more patient, considerate, and appreciative.

I saw God's love through the people around me, from the deacons who spent their own time building the entire stage, the teachers who prayed daily for us, to the fellow youth group members who invited their friends and the praise team and officers who worked hard to produce what turned out to be a success. In the end, all that I, as well as the rest of the youth group, can do is thank God. Through Him, our coffeehouse brought people together to have a good time and, more importantly, glorify God.

2011 Winter Retreat Testimony - Daniel Gunwoo Park

I have always felt emptiness in my heart before becoming Christian. I came into winter retreat as a sinner and have been rude to God at times. I have been using Him for my selfish reasons when really I should have been letting Him use me. My Dad doesn't go to a Christian church when I felt like he should because I love Him. So when we first worshipped God I remembered about my problems and for the first time I actually raised my hands up for God.

happy story

I just closed my eyes and pictured Him in my mind and really prayed hard. I did this throughout the whole retreat and it worked because I felt God gave me glory inside my heart. The pastor I thought was very good because he had a message and it was to be transformed and that's exactly what we needed to do. I know that a lot of youth group members felt God's presence during the labyrinth and I did too. When I got to the pillow I knelt down and prayed about everything that was hurting me.

I couldn't get a better feeling but there was one thing I prayed real hard about it was for all of us to believe in God, read the Bible, and make Him our number one priority so that we can all go to heaven together because after that everything is perfect our God is perfect. The last worship in the night was especially touching because in the end we prayed for everybody. People prayed for me and that just made me break down into tears. I felt saved by God because I was blessed by all youth group members and God. After this retreat I went home and just listened to Christian music praised God inside my own house and raised up my hands for Him and prayed that I love Him and that I thanked Him. I have a goal and that goal is to go on a mission trip to countries that don't believe in God or didn't get a chance to believe in God. I will be glad to help other believe in God because I feel everybody needs a good chance to be saved. God died for us and we need to put Him above everybody else. God is good all the time, He has filled the emptiness of my heart with His love and I felt saved. I love God He has truly saved me and I don't feel broken anymore. I say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HANMOORY CHURCH YOUTH GROUP



[EM STORY]

A Fresh Start - Michael Yi (EM PASTOR)

As I reflect upon 2011, I realize that this has been a year of a lot of changes in my wife and I's lives. We've celebrated many births. We've also said goodbye to a few friends who have passed away. Our biggest change however, is that we've said goodbye to our old church family and said hello to a new one.

My wife and I began serving Hanmoory EM in August. Since then, we have established a consistent worship service led by a small team of Teddy Hong, Steve Byoun, and Olivia Yi, a relationship with True Light Church in Teaneck, and have grown from a small group of 6 or 7 people into a group of 18-20. Yes, the Lord has been good to us.

But you know what? I believe that God is holding back. I believe that we've only seen a very small portion of what God truly has in store for Hanmoory EM. I believe that if he truly is a generous God who wants nothing more than to bless his children, then 2012 is going to be a tremendous year. He absolutely WANTS to bless us. We only need to ask.

We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that needs to be maintained, just like in a good marriage. I think that we've gotten so comfortable with just receiving all of God's blessings that we've forgotten what it means to really engage God and be in a deeply loving and intimate relationship with our Father. We must learn to give to God all of ourselves, including our time, monies, devotions, and affections. Only then can we truly be satisfied and fulfilled in ways never imagined. Only then can we more fully experience and receive God's abundant blessings and begin to live our lives to the full.

What I really want for our EM this year is not necessarily for a growth in number or spiritual knowledge, but a growth in our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Nothing would make me happier than to every single member of our EM fall desperately in love with Christ.



Olivia Yi / Michael Yi

[한글 학교]

*지난학기 한글학교 수업을 마치면서 한무리 한글학교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름 : 조 은결 **조은결**



조은결 (셋별반, 교사 박혜영)



조이삭 (기초반, 교사 최경아)

반기문	정연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06년 10월 공식 제1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공식 임명되었으며 한국인으로 최초로 2007년 1월 1일부터 유엔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국어인 한국어는 물론 영어, 예, 불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외국 학생의 미국 방문 프로그램(VISTA)에 선발되어 공부할 때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해준 대동맹을 만나고 외교관의 꿈을 더욱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임직은 한국 이미지를 높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에게 최초로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양한 배후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판단할 능력과 끈기를 배웠습니다. 또한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정신과 금권적으로 평가하는 마인드를 깨고 깨십니다. 그분은 훌륭한 일을 해 주셨는데도 작은 인연에 감사드리고 싶어서 모두가 감사의 의미나 감사하게 대하십시오.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정말 존경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금 한 개</th> <th>성령님</th> </tr> </thead> <tbody> <tr> <td>금 한 개</td> <td>기쁜</td> </tr> <tr> <td>방울 가득 채웠다.</td> <td>성령님이</td> </tr> <tr> <td></td> <td>마음을 가득 채웠다.</td> </tr> <tr> <td>깨끗하고 영리한</td> <td>성령님 나무가</td> </tr> <tr> <td>냄새로 물들이고,</td> <td>눈물 가득 채우고,</td> </tr> <tr> <td>영지목의 안전한</td> <td>성령님 케를이</td> </tr> <tr> <td>빛으로 물들이고,</td> <td>키를 가득 채우고,</td> </tr> <tr> <td>사로운 공원은</td> <td>성령님 선물이</td> </tr> <tr> <td>맛으로 물들이고,</td> <td>손을 가득 채우고,</td> </tr> <tr> <td>금</td> <td>그리고</td> </tr> <tr> <td>한 개가</td> <td>애기 예수님이</td> </tr> <tr> <td>방울다 크다.</td> <td>성령님을 한가득 채웠다.</td> </tr> <tr> <td>백경음</td> <td>고급 반 장현지</td> </tr> </tbody> </table>	금 한 개	성령님	금 한 개	기쁜	방울 가득 채웠다.	성령님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깨끗하고 영리한	성령님 나무가	냄새로 물들이고,	눈물 가득 채우고,	영지목의 안전한	성령님 케를이	빛으로 물들이고,	키를 가득 채우고,	사로운 공원은	성령님 선물이	맛으로 물들이고,	손을 가득 채우고,	금	그리고	한 개가	애기 예수님이	방울다 크다.	성령님을 한가득 채웠다.	백경음	고급 반 장현지
금 한 개	성령님																												
금 한 개	기쁜																												
방울 가득 채웠다.	성령님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깨끗하고 영리한	성령님 나무가																												
냄새로 물들이고,	눈물 가득 채우고,																												
영지목의 안전한	성령님 케를이																												
빛으로 물들이고,	키를 가득 채우고,																												
사로운 공원은	성령님 선물이																												
맛으로 물들이고,	손을 가득 채우고,																												
금	그리고																												
한 개가	애기 예수님이																												
방울다 크다.	성령님을 한가득 채웠다.																												
백경음	고급 반 장현지																												

정연수 (고급반, 교사 박혜연)

2011 한글학교	모방시 쓰기
금 한 개	성령님
금 한 개	기쁜
방울 가득 채웠다.	성령님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깨끗하고 영리한	성령님 나무가
냄새로 물들이고,	눈물 가득 채우고,
영지목의 안전한	성령님 케를이
빛으로 물들이고,	키를 가득 채우고,
사로운 공원은	성령님 선물이
맛으로 물들이고,	손을 가득 채우고,
금	그리고
한 개가	애기 예수님이
방울다 크다.	성령님을 한가득 채웠다.
백경음	고급 반 장현지

장현지 (고급반, 교사 이지원)

[한무리 News]

지난 분기 동안 한무리 교회의 행사 소식, 교우 동정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맨하탄 홈리스 미션
-100여명의 홈리스들과 축복 가득한 부흥회 같은 시간 가져

추수감사절을 앞둔 11월 20일(주일) 오후 5시, 성탄절 오후 3시에 맨하탄으로 홈리스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문혜옥 집사님을 비롯해 많은 교우님들의 사랑이 담긴 맛있는 음식과 과일들이 준비되고, 더불어 인표 형제님의 인도로 뜨거운 찬양이 진행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마이클 전도사님, 성탄절에는 박상돈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성탄절에는 특별히 80파운드에 달하는 양념 불고기가 준비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30여명이, 성탄절에는 50여명의 교회 식구들이 함께 했고, 두 번 모두 100명이 넘는 수많은 홈리스들이 함께한 '부흥회'이자 '축제'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양로원 방문

한무리 교우들은 지난 12월 16일, 금요일 두 곳의 양로원을 방문해 귀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양로원에서는 오전9시부터 이미숙 전도사님과 권사님들이 국악과 찬양으로, Long Life Day Care Center에서는 오후4시부터 유정림, 이명주 집사님과 한무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방문하여 다양한 악기와 율동으로 섬기고 왔습니다. 이번 양로원 방문에는 신대현 집사님이 떡을, 한양마트에서는 과자를 협찬해 주셔서 더욱 풍성하게 섬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한글학교 수료식, 특별 공연 이어져

지난 4개월 동안 매주 1부 예배시간에 진행되는 한무리 한글학교가 지난 12월 18일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주일 1부 예배 후에 있었던 이날 수료식에서는 지난 학기 동안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던 40여명의 어린이들이 수료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수료식을 기념한 공연으로 어린이들은 시편1편 전체 암송과 '떼굴떼굴 도토리',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꼬부랑 할머니' 등 세곡의 동요를 예쁜 율동과 함께 불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happy story

2011-2012 송구영신예배

-웃놀이와 간증, 예배, 축복기도로 진행된 은혜의 시간!

12월 31일 저녁 7시, 교회에서는 떡국과 함께하는 웃놀이가 벌어졌습니다. 웃놀이에서 1등은 박익성 목장, 2등은 이상현 목장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박익성 집사님 목장의 권사님들이 탁월한 웃놀이 실력을 선보여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이어졌던 간증시간에는 박진수 장로님과 홍현진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고, 예배와 축복기도의 시간, 말씀 뽀기가 진행되었습니다.

2012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져

-새해 첫 주 일주일간 100여명의 교우들이 참여, 부흥을 경험

1월 첫 주인 2일(월)부터 7일(토)까지 진행된 '삼겹썰' 기도파트너와 함께 한 특별새벽기도가 뜨거운 은혜와 참여의 열기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에는 두 살 유아부터 연로하신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첫날 106명의 참석을 시작으로 한 주 내내 성전을 가득 메우며 특새가 진행되었습니다. 박상돈 목사님의 영혼을 깨우는 뜨거운 말씀선포와 이어진 통성기도와 개인기도의 시간들은 2012년 한무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부흥을 맞보며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6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55명에게 마지막날 개근상으로 메달이 주어져서 기쁨을 더했습니다. 하준이와 이삭, 은별이도 메달을 받아 많은 교우들에게 기쁨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13주간의 '생명의 삶' 성경공부 마쳐

-90여명의 교우들이 참여, 도전과 은혜 충만했던 시간

한무리 교회 성경공부가 90여명의 교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9월11일부터 12월4일까지 13주간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진행된 성경공부시간에는 박상돈 목사님의 인도로 신앙인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성경 말씀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며 재미있고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주어진 성경 요약, 성경 구절 암송, 빈 칸 채우기 등의 과제는 교우들에게 살짝(?) 부담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그 부담을 훨씬 뛰어넘는 벅찬 은혜로 수강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생명의 삶 간증은 이번 호 '은혜나눔'에 실었습니다)



한무리 교회 '생명의 삶' 12주 성경공부 시간에 열중한 한무리 교우들.

[목장 이야기 - 새 목장장을 소개합니다]

* 새로이 임명받은 목장장들을 7가지의 질문을 통해 소개합니다.

1. 어릴 때 별명
2. 가장 은혜 받은 찬양
3. 특기 또는 취미
4. 한무리교회가 좋은 이유
5. 좋아하는 음식
6. 목장장이 된 소감
7. 목장장으로서의 포부

박정일 집사

1. 깍두기 (어릴때 아무지고 똑똑하다(?)하여....^^)
2. 지금까지 지내 온 것 (460장)
3. 축구 / 클래식 음악 듣기 / 시 짓기
4. 가족같은 분위기
5. 스테이크, 생선구이(바다음식은 거의 모두 좋아함)
6. 많은게 부족한데라 걱정이 앞서지만...(목원들과 예수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야 할텐데..라는 걱정과 염려가 든다)
7. 어떠한 일이든지 시작할 때 늘 생각나는 "네 시작은 미약하나...."이 말씀처럼 목장식구가 2배가 될 수 있도록 무릎꿇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데 성심을 다할 생각이다.

신대현 집사

1. 똑똑이
2. 4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 글로 표현하는 것 / 모든것을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4.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교회 / 모든 성도가 가족과 같은 친밀감이 있기 때문
5. 오늘 하루 한끼는 생전에 한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여 선택하고 먹는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좋아한다.
6. 모든 목장 식구가 같은 목장으로 여태까지 지냈기 때문에 전과 동일하게 모임을 하려고 한다.
7. 우리 목장은 마음이 따뜻한 성도들로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모든것이 풍부합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장점을 어둡고 쓸쓸하게 보내시는 영혼들, 외로운 분들을 위하여 봉사를 하며 전도하겠습니다.

이민정 집사

1. 못난이
2.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Here I am
3. 남을 이해하기 / 위로하기 / 음악듣기 / 드라이브 하기
4. 사랑 넘치는 가족같은 교회
5. 곱창, 삼겹살
6. 감사하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7. 목숨걸고 전도하는 목장 되겠습니다.

이재영 집사

1. 왕눈이
2. 일어나 걸어라
3. 무언가 손으로 만드느일 / 텃밭 가꾸기
4. 감동을 주는 교역자, 감동을 주는 교우들이 있는 은혜로운 교회라서
5. 봄나물과 된장찌개
6. 세수 안하고 거울앞에선 느낌. 많은것이 부족하지만 변화된 신앙인이 되기위해 기도함.
7. 믿음 좋으신 목원들이 많으신 목장이니만큼 믿음안에서 협력하여 질과 양 모두 발전하여 영혼구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목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happy story

홍현진 집사

1. 흥가 (특별한 별명이 없었습니다)
2.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 사진 찍기 / 인터넷 검색
4. 미국의 삶에서 저의 첫 교회이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삶의 에너지와 지혜를 공급받고, 성도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5. 계란을 재료로 만든 음식
6. 목장장이 되기에 성품, 신앙, 자질 등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무섭고, 부담됩니다. 저의 계획대로라면 아직은 아닌데... 그러나 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순종하려 합니다.
7. 목장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한무리교회에 와서 장로님, 집사님들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새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나눔의 그릇을 많이 비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채워 주실 것 입니다.

[한무리 일리를 찾아라!]

*한무리 교회에는 보이지 않게 애쓰는 '숨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 봅니다.
왼쪽 사역 괄호안에 오른쪽 알파벳을 넣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추첨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숨은 일꾼을 찾아"

- 1) 친교실 물가져오기 ()
- 2) 테이블 태그 올리기,
교실 열렸는지 확인하기 ()
- 3) 주보 접기 ()
- 4) 비전하우스 청소하기 ()
- 5) 커피 준비하기 ()
- 6) 지난 10년간 1부 친교 베이글 준비하기 ()
- 7) 홍리스 미션 음식 2년째 도네이션하기 ()
- 8) 설교영상 편집, 업로드하기 ()
- 9) 교회 웹사이트 배너 바꿔주기 ()
- 10) 한글학교 간식 계속 도네이션하기 ()
- 11) 교회 간판 설치 및 치우기 ()

- A 이명주 집사님
- B 신경이 집사님, 신한주 성도님,
심춘자 집사님 이상현 집사님,
최창대 성도님
- C 김순희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문혜옥 집사님
- D 정명보 집사님, 김옥환 집사님
- E 신대현 집사님
- F 박정일 집사님
- G 이보라 집사님, 이상성 집사님
- H 이재영 집사님
- I 유미엽 권사님
- J 신영환 집사님, 박정일 집사님
- K 당옥녀 권사님

행복 이야기 통권 2호 2012년 봄호

행복 이야기는 해외 한인장로회 뉴저지노회에 소속된 한무리교회의 소식지로 일년에 4번 발행되며, 교인들간의 교제와 문서를 통한 복음전파를 목적으로하며 무료로 보급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hanmoorychurch@gmail.com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책임: 박진수

- 편집 디자인: 김성수

- 사진 촬영: 홍현진

- 취재 및 정리: 이수정, 이지원, 유정림, 조희창

- 표지 그림: 안미경

- 제작: 김 현